

2010년 6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1,141조회)

'부부는 닮는다'  
'夫婦は似ている'

'부부는 닮는다.' 과연 사실일까?  
'夫婦は似ている'果たしてそうだろうか?

이 속설을 증명해 낸 연구가 나와 흥미를 끈다.  
この俗説を証明した研究が出て興味を引く

영국 리버풀 대학의 연구진은 남녀 각 11명에게  
英国リバプール大学の研究陣は男女各11名に

부부 160쌍의 사진을 뒤섞은 뒤 인상이 닮은  
夫婦160組の写真を混ぜ合わせた後、印象が似ている

남녀들을 고르라고 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男女を選んでと言った(選ばせた)。その結果驚くほどに

서로 닮은 것으로 지목된 남녀 가운데  
お互い似ていることで着目された男女の中で

실제 부부가 상당히 많았다.  
実際夫婦がとても多かった。

- 송길원의《비움과 채움:느낌표!가 감탄하다》중에서 -  
- ソン・キルウオンの<空と満たし:感嘆符!が簡単だ>より -

\*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 体は心についていきます

마음을 나누다 보면 말씨와 생각이 비슷해지고  
心をやり取りしてみれば、物言いと考えが似かよって

얼굴도 닮아갑니다. 닮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지요.  
顔も似ていきます。似なければそれはおかしい事でしょう

부부가 닮는다는 것은 잘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夫婦が似ているということは、よく生きてきたという意味です

어느덧 하나가 되어간다는 뜻이고, 끝까지  
いつの間にかひとつになる意味で、最後まで

하나가 되어 잘 늙어가라는 뜻입니다.  
ひとつになってよく老いていき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

속설 [俗説]

<1> [명사] 俗説;世間に言い伝えられている根拠のはっきりしない話。

<2> [명사] ⇒속담

뒤-섞다

[타동사] (人や物を)取り混ぜる;いろいろ混ぜあわせる。

말:-씨

<1> [명사] なまり;弁;独特な発音や語調。

<2> [명사] 言葉遣い;言い方。

20100621.txt

비슷하다2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似ている;似通っている。

2010년 6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4,154조회)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다  
私一人だけの体ではない

간경화!  
肝硬化!

병원 문 앞에 섰을 때 허탈했다.  
病院の入り口の前でたっていた時虚脱した

나 때문이 아니다. 나로 인해서 고통받을 사람들,  
私のためではない。私によって苦痛を受ける人たち

특히 가족 생각을 하니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  
特に家族を考えると到底一步を踏み出せない

'미안하다.'  
'すまない'

진심이다. 나는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本心だ。私は私だけの体ではないことを

너무 모르고 살았다. 일이 닥쳐서야 그것을 깨달은  
あまり知らず生きてきた。ことが近づいてそれを気づく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私は、とてもおろかな人間だ

백번을 미안하다고 하더라도  
100回謝ったとしても

용서될 수 있을까?  
許してもらえらるだろうか?

- 임채영의《나도 집이 그리다》중에서 -  
- イム・チヨン の <私も家が懐かしい> より -

\* '떨린 식구가 많다'는 말들을 더러 하지요?  
\* 属する家族が多いという言葉たまにしますか?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진 짐도 많음을 일컫습니다.  
それほど、責任感が重く、背負った荷物の多さをほめたたえます

'떨린 식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무너지면  
'属する家族'の中心に立っている人が倒れれば

다른 사람도 속절없이 함께 무너집니다.  
ほかの人もしようもなく、一緒に倒れます

'떨린 식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属する家族'がない人はいません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だから、健康に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いつも気をつけながら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걸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歩いて倒れないように

미안해지지 않도록.  
謝らないように

도:저-히 [到底-]  
[부사] 到底;とても。

더러1  
<1> [부사] いくらか;多少;少しは;若干。

속절없-이  
[부사] どうしようもなく;やるせなく。

<2> [부사] たまに;ときどき;時おり。

일컫다  
<1> {타동사·ㄷ 불규칙 활용} (何々と)呼ぶ;称する;号する;言う。  
<2> {타동사·ㄷ 불규칙 활용} ほめる;たたえる。

2010년 6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1,036조회)

38번 오른 히말라야  
38回登ったヒマラ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私は今どこへ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か?

'나의 꿈은 무엇인가?'  
私の夢は何か?

'내가 다시 도전하고 싶은 대상은 어떤 것인가?'  
私がもう一度挑戦したい対象はどんなことか?

나는 지금 대자연 속에서 나와 사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私は今大自然の中から出て、人の中に歩いていく

중이다. 히말라야 8,000미터를 38번이나 오르기도  
途中だ。ヒマラヤ8,000メートルを38回も登っても

그곳을 향하는 나는 산에서 사람과 희망을  
そこ(ヒマラヤ)に向かう私は、山から人と希望を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을 보았다.  
見たためだ。そして人生を見た。

- 엄홍길의《오직 희망만을 말하라》중에서 -  
- オム・ホンキルの〈ひたすら希望だけを話さない〉より -

\* 38번의 히말라야 등정,  
\* 38回のヒマラヤ登頂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だれでも出来ることはありません

엄청난 도전의식에 매순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並外れた挑戦意識で毎瞬間命を懸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히말라야를 38번이나 올랐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しかしヒマラヤを38回も登ったために逢った人たちが

있습니다. 목숨걸고 오르지 않았더라면 결코 만나지  
います。命を懸けて登らなかつたら決して逢うことが

못했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희망도 그와 같아서  
出来なかった大切な人たちです。希望もこれと同じく

목숨이 달린 역경의 계곡에서, 죽음과도 같은  
命がけの逆境の谷間で、死とも似た

절망의 골짜기에서 만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絶望の溪谷であうのが希望です

'히말라야'는 희망과 사람을 만나는  
'ヒマラヤ'は希望と人の出会う

20100623.txt

성소(聖所)입니다.  
聖地です。

대:-자연 [大自然]  
[명사] 大自然。  
골짜기  
[명사] 谷;谷間;溪谷。

2010년 6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1,113조회)

'도전 자격증'  
挑戦の資格証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新しい仕事をする事が出来る人は

그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닌,  
その分野で知識と経験が多い専門家ではなく

모험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冒険心が強い人です"この文章を読むあなたも

당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배운 것이  
あなたが望む分野の専門家ではないとって、学ぶことが

많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라. 오히려  
多くなくて、失望したり、躊躇したりしないでください。むしろ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과  
型にはまらない、自由な方式と

의욕이 충만하다면 새로운 일에  
意欲が充満すれば新しいことに

도전할 자격이 충분하다.  
挑戦する資格は十分です。

- 이나모리 가즈오의《왜 일하는가》중에서 -  
- 稲盛和夫の〈なぜ仕事をするのか〉より -

\*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 運転免許を持っていても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장롱 면허증'이 되고 맙니다.  
長い間使わなければ'タンス免許証'になってしまいます

날개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오리처럼 날지 못합니다.  
翼があっても使わなければ、鴨のように飛ぶことが出来ません

누구에게나 '도전 자격증'이 주어져 있습니다.  
誰にでも'挑戦資格証'が与えられて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의 틀에 안주하여  
それにもかかわらず、惰性の枠に安住して

모험심과 새로운 발상, 의욕을 잃으면  
冒険心と新しい発想、意欲をなくせば

도전 자격증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挑戦資格証も価値がなくなります。

자격증 資格証

모:험 [冒険]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冒険。

틀

[명사] 型; 枠。

<1> [명사] (物の)型; 形を作り出すもの。

장:籠 [槓籠]

[명사] たんす。



2010년 6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1,304조회)

얼마만의 휴식이던가?  
どれくらいぶりの休息だったろうか

정말  
本当に

놀라운 여행이었다.  
驚く旅行だった

얼마만의 휴식이던가?  
どれくらいぶりの休息だったろうか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을  
その間私は他の人々を

내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私の大切な時間を奪って、目標達成を妨害する

장애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障害物と思ってきた。しかし、今これ以上こんな考えを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업무와  
するのはいけない。私は一人ではない。私の業務と

일상에 빨리 적용해보고 싶다.  
日常に早く適用してみたい。

- 스티븐 런던·카 헤이저먼의《한 걸음만 더》중에서 -  
- スティーブン・ランディン、カー・ハイガーマンの〈一歩だけさらに〉より -

\* 5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 5年の間土日なく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大統領の演説文を作成しながら一番重要なことが

휴식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던 날, 다른 사람들은  
休みでした。大統領任期を終えた、ほかの人々たちは

'좋은 자리'를 찾아 뛰어다닐 때 저는 배낭 하나 달랑 메고  
'よい場所'を探して走り回るとき、私はバックひとつぶらりとかついで

동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는 경제가 어려웠지만  
東ヨーロッパヒッチハイク旅行に旅立ちました。当時も経済が難しかったが

그때의 '휴식 여행'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そのときの'休息旅行'が今日の私を作りました。

휴식이 필요한 사람!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休息の必要な人! 他でもないあなたです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휴식할  
熱心に生きてきた人には休息する

20100625.txt

자격이 있습니다.  
資格があります。

(2008년 12월 1일자 앙코르메일)  
(2008年12月1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달랑

<1> [부사·하다형 자·타동사] 小さい鈴などが一度鳴る音: ちりん; ちりりん; りん。  
<2> [부사·하다형 자·타동사] 小さなものがつるされているさま: ぶらりと。

스티븐 런던(Stephen Lundin)·카 헤이저먼(Carr Hagerman)  
スティーブン・ランディン, カー・ヘイガーマン

2010년 6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333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세린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セリム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여행의 목적지  
旅行の目的地

길가의 풀과 나무와 들꽃들을  
道端の草と木と野花を

찬찬히 보지 못하거나 새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まじまじと見れないとか、鳥のさえずりを聞くことも出来ず

정신없이 걷는다면, 또 길에 얽힌 이야기와 바람이 전하는  
夢中で歩いたら、さらに、道に絡まれた話と風が伝える

말을 듣지 못한다면, 대체 이 자연의 길을 걷는 의미는 무엇일까.  
言葉を聴くことが出来なければ、いったいこの自然の道を歩く意味はなんだろうか。

그러므로 이 길에서는 느리게 걸어야 하리라.  
それゆえ、この道ではゆっくり歩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목적지에 가지 못한들 어떠랴. 여행의 목적지는  
目的地に行くことが出来なければどうなるだろうか。旅行の目的地は

여행 그 자체가 아닌가. 여행을 떠난 순간 우리는  
旅行そのものではないだろうか。旅だつ瞬間私たちは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すでに目的地に到着したようなものだ

- 강재윤의《올레 사랑을 만나다》중에서 -  
- カン・ジェユンの<オーレ愛に会う>より -

\* 일상이 지루하고 답답할 때  
\* 日常が退屈でつまらないとき

우린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私たちは、どこかに旅立ちたいといいます

그것은 단조로운 일상에 숨통을 열어 줄 낯선 곳에서의 쉼이겠지요.  
それは、単調な日常に氣道を開いてくれる、見知らぬところでの休息でしょう

“여행을 떠나고 싶다”  
“旅行に行きたい”

어딘가로 나를 인도하는 떨림의 순간,  
どこかに私を導いてくれる震える瞬間

우리는 떠난다고 말하고 여행을 통해 쉼을 느껴보려 하지만  
私たちは旅立ったとあって、旅行を通じ休みを感じようとするが

20100626.txt

결국 '쉼'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結局'休み'自体が目的ではなかったという事実を気づくようになります

떠남의 의미, 여행의 목적은 결국 그 머나먼 길을 돌고 돌아  
旅立ちの意味、旅行の目的は結局そのはるかに遠い道を回って

결국 여행, 떠남 그 자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結局、旅行そのものが価値だったことを気づくようになります。

좋은 글 주신 이세린님께  
いい文章を頂いたイ・セリムさまに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 오늘밤 월드컵 우루과이전, 승리를 기원합니다.  
- 今日の晩ワールドカップウルグアイ戦、勝利を祈ります

16강을 넘어 8강으로, 4강으로, 결승으로,  
16強を超え8強に、4強に、決勝に

우승으로 가십시오.  
優勝に行きましょう

좋은 주말 보내시고  
いい週末を送って

오늘도 내일도 많이 웃으세요.  
今日も明日もたくさん笑ってください

まじ-まじ

[부사] 《「と」의 꼴로도 씀》

1. [부사] 눈을 떴지 않고 뻥히 바라보는 모양. 말뚱말뚱. 찬찬히. 말끄러미.  
길-가

[명사] 道端;路边;路傍。

-라

<1> <어미> 母音で終わる語幹や尊敬の意味を表わす '-시-' に付く終結語尾。  
子音で終わる語幹には媒介母音 '으' を添える。反語的な疑問を表わす:...(する)か;...(する)ものか;...(する)であろうか;...(し)ようか。

<2> <어미> 母音で終わる動詞の語幹に付く疑問形の終結語尾。子音で終わる  
語幹には媒介母音 '으' を添える。自分のしようとするに対して相手の意志を  
尋ねる:...(し)ようか;...(して)やろうか;...(する)か。

엮히다1

[자동사] '엮다' の受動:縛られる;絡まれる。

기-どう [氣道]

[명사] 『생리학』 기도. 숨통.

낯-설다

[형용사] 見知らぬ;見慣れない;見たことがない;不慣れた;面識がない。

떨리다1

[자동사] '떨다2' の受動:震える;おののく;わななく。

머;나-멀다

[형용사] はるかに遠い;非常に遠い。

느리다

<1> [형용사] のろい;遅い;のろのろしている。

<2> [형용사] (撚りや織り目などが)きつくつまっていない;緩い;粗い。